

남자 대학생의 봄철 착의 실태 조사

권수애* · 박수정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패션디자인정보학과

A Study on the Clothing Practices of Male University students In the Spring season

Soo Ae Kweon* · Su Jeong Park

College of Human Ecology, Chungbuk Univ.

1. 서론

의복은 인체를 감싸고 있는 가장 근접한 환경으로 인체와 환경과의 사이에서 생리적인 적응을 위한 보조수단으로서 체온조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의복의 보온력 조절은 의복기후를 쾌적하게 유지시켜 줄 뿐 아니라, 인체의 건강 유지 및 증진과 생리기능 증진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온열적 쾌적성을 얻기 위해서는 환경온도의 조절에 의존하기 보다는 착의에 의한 조절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쾌적 환경 획득을 위한 착의량 설정 및 착의 조절에 관한 연구(안필자, 최정화, 1992)가 여러 측면에서 진행되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부지역에 거주하는 20대 건강한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봄철의 착의량과 착의내용, 한서감각과 건강상태, 생활습관을 측정하여 착의량에 영향을 주는 신체적 특성과 생활습관의 관계를 분석 검토하였다.

2. 연구방법

2.1 착의량 측정

2008년 4월 28일부터 5월 9일 사이에 연구기간 동안 건강 상태가 양호한 남자 대학생 45명의 조사당일 학교에 입고 온 의복을 측정 날짜를 다르게 하여 총 세 번씩 피험자들의 상의, 하의, 내의, 외의, 총착의량을 측정하였다. 착용의복의 내용과 신체적 특징, 건강상태, 실내외의 환경조건에 따른 한서감각, 생활습관을 설문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2.4±2.3세, 신장 175.8±4.9 cm, 체중 67.2±6.3kg, 체표면적 1.82±0.96m², BMI 21.75±1.75로 나타났다.

2.2 통계분석

조사와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각 항목에 대한 빈도와 평균,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항목 간의 유의차는 분산분석, t-검증을 실시하고, 항목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을 산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신체와 건강, 생활특성

신장은 171~175cm가 35.6%, 체중은 61~65kg이 42.2%이었으며, 체형은 40.0%가 보통, 마른편은 31.1%, 살찐편이 28.9%를 나타내었다. 등하교시 도보 시간은 30분 이내가 46.7%, 30분~1시간은 31.1%, 1시간 이상은 22.2%를 나타내었다. 또한 등하교시 교통수단으로서 도보가 40.0%로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 37.8%, 자차 22.2%의 순이었다. 감기 이환율은 73.3%가 '그렇지않다', 내한내열성은, 추위 잘견딤 35.6%, 더위 잘견딤 31.1%, 모두 잘 견딤 6.7%, 모두 잘 견디지 못함 26.7%로 나타났다.

3.2 한서감각과 착의량

실외의 한서감에 대해 쾌적함 28.9%이고 실내의 한서감은 쾌적함 37.8%로 나타났고, 실내·외 기 후 모두 덥다는 응답수치가 44.4%로 대부분 덥다고 느끼고 있었다. 실외보다 실내가 더 쾌적하게 느끼고 있었다. 실내외 한서감각과 착의량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실내·외 모두 한서감각과 총착의량, 상의량, 하의량, 내의량, 외의량은 유의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착의한 의복 종류, 소재와 착의 매수

상의를 1매 착용한 경우는 24.4%(11명), 2매 착용은 71.1%(32명) 3매 착용은 4.5%(2명)이었고, 복종별로는 긴팔 티셔츠에 하복부까지의 길이가 주

를 이루었고, 소재는 면, 목둘레 개방도는 보통이 가장 많았다. 하의는 면 소재의 발목 길이의 청바지, 내의는 브리이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몸에 피트되지 않는 트렁크와 브리이프의 조임성과 트렁크의 헐렁함을 보완한 드로우즈 착용자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속옷의 길이는 대퇴부길이, 소재는 면 81.8%, 혼방 18.2%를 차지하였다.

양말은 하이삭스와 면소재가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이 밖에 심미성과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혼방 소재의 긴 머플러와 가죽 장갑을 착용한 피 실험자가 각각 1명 이었고, 주로 면과 혼방 소재의 캡을 피험자의 28.9%(13명)가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 상의 1매 착용자의 의복종류와 소재

		비율(%)									
상	의	종류		소매길이		길이		소재		목둘레 개방도	
		첫 번째	티셔츠	81.8	긴	27.3	하복부	81.8	면	72.7	개방적
		스포츠셔츠	18.2	칠부	9.1	대퇴부	18.2	모	9.1	보통	61.5
				반팔	63.6			화학섬유	9.1	폐쇄적	23.1
		계	100	계	100	계	100	계	100	계	100
하	의	종류		길이		소재					
		청바지	72.7	발목	63.6	면		면		72.7	
		정장바지	9.1	대퇴부	18.2	화학섬유		화학섬유		9.1	
		면바지	9.1	배부분	9.1	혼방		혼방		9.1	
		칠부바지	9.1	해당없음	9.1	해당없음		해당없음		9.1	
		계	100	계	100	계	100	계	100		
내	의	종류		길이		소재					
		브리이프	63.6			면		면		81.8	
		드로우즈	18.2	대퇴부	100	혼방		혼방		18.2	
		트렁크	18.2								
		계	100	계	100	계	100	계	100		

3.4 착의중량

총 착의 중량 평균은 606.8g/m²이었으며 상의 200.8g/m², 하의 340.2g/m², 내의 32.7g/m², 외의 245.5g/m²로 나타났다.

표 2. 신체상태와 착의량

	Total C.W	Upper C.W	Lower C.W	Under C.W	Outer C.W
신장	-.383**	-.408**	-.373*	-.399**	.194
체중	-.361*	-.532**	-.341*	-.247	-.305
BMI	.106	-.081	.051	-.107	-.358
BSA	-.411**	-.548**	-.395**	-.346*	-.250
감기이환율	.009	.150	-.047	-.041	-.105
체형	-.195	-.030	-.169	-.170	.161

* P<.05 ** P<.01

신체상태와 착의량의 상관관계를 보면 신장과 총 착의량, 상의량, 내의량, 하의량은 역상관을 나타내었다. 체중과 총착의량, 하의량, 상의량도 역상관을 나타내어 체격이 클수록 착의량이 적어짐을 알 수 있었다. 체표면적은 총착의량, 상의량, 하의량, 내의량과 역상관을 나타내었으나, B.M.I과 착의량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생활습관과 착의량을 살펴보면, 도보시간과 착의량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고, 교통수단과 의의량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내한성이 우수할수록 착의량은 적어 내한성이 있고 도보로 통학을 할수록 착의량이 적음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의복 착용기준과 착의량에 상관이 있음을 제시한 연구(奧窪:1987)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의복착용기준을 생물학적 기준과 사회심리적 기준으로 분류하여, 각 변인과 착의량의 상관관계를 <표3>에 나타내었다.

표 3. 의복착용기준 변인과 착의량

	Total C.W	Upper C.W	Lower C.W	Under C.W	Outer C.W
심미성	-.141	-.099	.049	-.403**	.074
실용성	-.102	-.228	-.028	-.056	-.311
적합성	.010	.048	.051	-.131	.301
동조성	.023	.086	-.101	-.035	.145

** P<.01

심미성과 내의량이 역상관을 나타내었고, 실용성, 적합성, 동조성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심미성에 중점을 두고 의복을 착용할수록 내의량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남자대학생의 봄철 착의실태를 연구한 결과 착용한 의복의 종류와 매수가 다양하나 대체로 외의는 면 소재의 긴팔 티셔츠와 하의는 면 청바지를 주로 착용하였다. 외의는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많고, 내의로는 브리이프 착용자가 가장 많았다.

총 착의중량은 체격, 체표면적, 통학수단과 유의한 상관관을 나타내었고 의복 착용 기준 중 심미성과 내의 착의량이 유의한 역상관을 보였다.

개인의 착의량은 신체상태와 유의한 상관관을 보였으므로 건강상태와 체격에 따른 착의 권장량 설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한 착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 고 문 헌

- 안필자· 최정화(1992) 기후적응과 착의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6(4), 509-522
- 오순(1998). 남녀 대학생의 착의실태 조사연구, **논문집**, 20, 361-379
- 이원자(1994). 표준 착의량 설정을 위한 착의 분석, **생활문화·예술논집**, 17, 87-100
- 奧窪朝子(1987). **織消誌**, 28, 123